

제주 뷰티 수출 거점 ‘뷰티라운지’ 개소 10개월 월 평균 매출 296만원 ‘초라’

지난해 11월 개소 이후 2214명 방문… 일 평균 8.5명
운영 인력 3명인데 월 평균 매출은 300만원도 안돼
도, 연말까지 리모델링·입점 기업 확대 등 개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칠성로에 문을 연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In Beautiful Jeju’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또한 월 평균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제주도가 제공한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개소 이후 올해 9월 29일까지 관리직 1인과 직원 2인이 운영하는 뷰티라운지의 매출은 2964만원, 판매 수량은 3341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방문객은 2214명이다.

화요일 정기휴무를 뺀 운영일 26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8.5명,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1만원, 월 평균 매출은 약 296만원이다.

실제 본보가 지난 30일 퇴근 시간대 매장 앞에서 지켜본 결과, 매장을 찾은 방문객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길을 걷던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으나 매장 간판과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쳤다. 반면, 동시간대 인근에 위치한 올리브영과 다이소 화장품 코너에는 관광객과 도민들로 북적거렸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개소 당시 이곳을 도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지원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국내외 바이어와 인플

루언서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소 당시 내건 목표에 비해 현재까지 거둔 실적은 초라하다.

9월까지 5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과 2건의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됐으며 팝업존 운영 39회, 방송 홍보 3회, 메이크업·아로마테라피 등 체험 프로그램 10회 등이 운영됐다.

제주도도 그간의 실적이 저조했음을 인정하며 홍보·마케팅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부진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그동안 도내 화장품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알릴 공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뷰티라운지의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 활성화를 위해 ‘K-뷰티 수출 거점’ 사업에 나선 제주도는 19억7000만원을 투입해 뷰티라운지 개편과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팝업스토어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매장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방송 설비를 갖춘 해외 바이어 상담실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새로 꾸리고 입점 기업을 5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간판을 교체하고 매대 구성도 바꾸는 등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현재 중기부와의 협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곧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연말 재개장을 목표로 이달 중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2월 해외 바이어를 제주로 초청해 도내 화장품 기업과의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지난해 11월 제주시 칠성로에 개소한 뷰티라운지.

오소범기자



만개한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 1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도로변에 활짝 핀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BRT 존폐 가를 민간 협의체 출범

전문가·서광로 주민·시민단체 등 13명 구성… 9월 30일 첫 회의

도 “늦어도 11월 내 권고안 도출”… 시민 의견도 수렴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핵심으로 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존폐 여부를 논의할 민간 협의 기구가 발족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제주 BRT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주도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인선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간협의체는 전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교통 전문가와 대학생, 제주형 BRT가 최초 도입된 서광로 인근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제주형 BRT를 폐지하는게 좋은지, 유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등을 논의한 뒤, 도출된 결론을 권고안으로 만들어 제주도에 제출한다.

도 관계자는 “민간협의체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권고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운전자들과 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U턴 구간 신설이나 섬식정류장 시설 보완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폭 넓은 논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위성곤 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내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제주형 BRT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동은 자생단체 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서 제주형 BRT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수합하게 될 것”이라며 “수합한 의견은 제주도에 전달해 민간협의체가 권고안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 지사가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 권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민간협의체 논의 결과로 사실상 제주형 BRT 존폐 여부가 갈린다.

제주형 BRT는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버스가 도로 한 가운데 마치 섬처럼 조성된 섬식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도정이 서광로 3.1km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양문형버스는 버스 전용 중양차로로 운행한다.

그러나 유턴 구간 폐쇄와 일부 구간의 S자 형태 차로 등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졌다. 또 양문형이 아닌 일반버스는 서광로 구간에서도 여전히 상대식 정류장에 세워야 해 해당 구간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버스에 내주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위 지사는 선거 당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사 취임 이후에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선화한 상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계좌 압류… 5면

토·일·월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은행이 만드는 국내 최초 ERP뱅킹,



기업이 일하는 ERP 안에서 금융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금융을 열어갑니다.

제주은행 | DOUZONE